

교 회 복 포

신령한 예배
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과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오묘한그말씀 / 9월 20일 금요일집회

구약에 나타난 선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본문)

1. 구약에 있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장~11장은 그 범위가 우주적이고, 창조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매우 긴 시간간격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된다. 또한 창세기 1장~11장의 내용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땅 위에 70여 종의 종족들로 확장되기까지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예를 들어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11장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중심사상은 '축복' 또는 '축복한다'라는 주제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2장 1절~3절에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된다. 하지만 창세기 1장~11장에는 축복과 동시에 두려운 재앙(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세 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축복의 도래요, 둘째는 '노아'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한 홍수이며, 셋째는 바벨탑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혼란함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① 창세기 1장~11장에 나타난 세 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창세기 1장~11장의 말씀의 범위와 말씀 자체를 가장 광범위하고 철저히 묘사하고 있다(시간과 공간 그리고 세상의 근원을 가장 광범위하고 철저히 묘사하였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들과 땅의 모든 소산들과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인류에게까지 저주가 내려졌다(창 3:16~19).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여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세 대적과 싸움이 벌어질 것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한 사람에게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해결될 것을 보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와는 그녀의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Cain)이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에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다(창 4:1). 창세기 4:1은 히브리 단어를 '가인'을 의미하고 있다고 구약성경학자들은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했기에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름은 '가인'이 메시아가 오시는 복음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와'가 '가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성한 인간으로 뱀을 전할 자로 믿었으며, '가인'은 말미암아 자신이 자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인류에게 일한 두 번째 재앙인 홍수 사건은 노아를 포함한 여덟 식구 외에는 모든 인류가 전멸하는 사건이다(창 6:11~13). 방주에 들어간 이들은 노아를 포함하여 모두 여덟 사람이었고(창 6:17~19), 이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뱀'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창 9:1, 26~27). 특히 뱀의 후손들에게 말하셨던 '거하신다'는 약속은 끔찍한 심판의 계곡을 지나 온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놀라운 말씀이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요 17:20~23). 그런데 한편으로 언약이 제시된 '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이 '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세 번째 재앙 후에 밝혀졌다.

사람들은 언제나 '뱀', 즉 '가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을 좋아한다(창 3:4, 11:4). 그래서 홍수 후에 번성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또 다시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흉흉함을 나타내려고 '시날'(Shinar) 땅에서 모여서 성과 대(a city, and a tower)를 건설하기로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가 되기를 원했다(창 11:1~4). 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헛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의사소통에 혼란함이 오게 되었다(창 11:6~8). 인간이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동시에 그들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창 11:9). 그러나 인간들이 저지른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뱀' 중 에서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종재자로 삼으신 것이었다(창 11:10, 25~26).

이처럼 우리는 창세기 1장~11장을 통해서, 기나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재앙과 그 재앙을 치료하시고 축복된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며,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3절에서 앞으로 오는 세대를 향한 약속과 계획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지 · 난 · 수 · 요 · 예 · 배 · 매 · 시 · 지

여호와의 편에 서라 (창 32:25~29)

“모세가 본 족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여 하세 원수에게 조종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배기로 나아 오라 하며 배회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노라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형제에 칼을 차고 진 이 군에서 저 군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형수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라야 하였느니라. 배회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으니 바나다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찼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원신하게 되셨느니라. 그 자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서론

믿음이 없어서 조금도 안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선교하고 강박력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그들은 이성을 향하여 자신들의 선교를 만들려고 요창한다(창 32:1).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지도자인 모세가 어떤 지도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창 32:1).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지도자를 필요로 한 것이 분명하다. 그 사실은 이들이 여호와를 너무도 쉽게 자라하고 우상의 편에 서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모면하고자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둘러댔고(창 32:2).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능성이자가 만들어졌다고 핑계대고(창 32:24).

본문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가?

- 본문은 두 면을 설명한다.

이שראל의 우상숭배 사정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날의 본문들 통해서, 인간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이것은 여호와와 어떤 우상의 편에 서는 결과를 가늠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창 6:2, 고전 10:2). 생각해 보라, 전쟁 중에 중전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부와 마귀도 각각 자신의 위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살고 세상도 섬기려고 두 주인을 모두 자라하고 있는 자들을 얼마나 존경하는가? 또는 하나님은 섬기기 않으면서 인간을 섬기는 자들을 누가 칭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자기를 부린다는 자뿐이다.

하나님의 편이 어떠한가?

- 다른 것을 반드시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뜻한다. 제자들은 예수를 좇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창 5:1).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부모형제와 자기 생양까지 버려야 한다(창 18:29). 그래서 자기 생양을 버리고 따라오고 권하고(창 14:27).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실로 강력하게 말씀하셨다(창 14:33). 그러므로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창 16:24).

-우리는 군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창 23).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창 6:2). 그것이야말로 우리 군대의 원천에 해당하고 고난을 받으니 그리스도를 받드는 것이다(창 21:1).

- 우리는 아주 적은 수의 한이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곳은 십자가이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쳤다(창 14:5). 버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던 많은 자들도 떠나갔다(창 4:16).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들은 아주 적은 수라고 말씀하셨다(창 7:14).

- 하나님 편에 이로운 줄이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거룩한 자기 된다(창 43~44).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창 15:1). 그리고 우리들을 대적할 자 없게 되며(창 6:3). 영생으로의 즐거움으로 자신의 구원을 전한하게 될 것이다(창 18:1).

- 하나님 편에 자기 알음에 대한 대가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죄의 편에 선다면 사망에 이를 것 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창 6:23).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피를 대립하는 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창 10:28~29).

결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인지하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요, 반대로 우상의 편에 선다면 영원히 심판의 해를 만날 것이다(창 11:22). 돈이나 우상 등,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그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마. 떠나지 마. 하나님 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사며, 우리를 인위하는 분이시니(창 23:4).

2002년도 제 3차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전사 기도회

일 시: 2002년 9월 24일(화) 오후 8시~9시 40분
장 소: 칼빌로

주 제: 마지막 기도
강 사: 김성관 목사

ALL THESE THINGS

(Genesis 42:29-36)

"And their father Jacob said to them, 'You have bereaved me of my children: Joseph is no more, and Simeon is no more, and you would take Benjamin;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When Jacob's sons returned from their first visit to Egypt, they told their father that "the lord of the land" had spoken harshly with them, and took them for "spies of the country" (v. 30). The reported that they were forced to leave Simeon behind, and ordered to bring their youngest brother, Benjamin, back to Egypt. Furthermore, while they were unloading their sacks of food supplies they found all their money intact. This money was to be used to pay for the supplies they brought back. Jacob was bereaved. He told his sons,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v. 36). When things seem amiss, everyone in this world seriously confesses, "Oh my God, what's going on here?" Jacob, whom God chose to give His blessings from his father Abraham, had twelve grown sons. He didn't know that it was Joseph who was "the lord of the land", but he had already made up his mind that everything that was reported to him was disaster instead of blessing. How many of you make the same mistake? How often do you confront blessings, thinking that they are just curses?

There are many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in life that come to you covered in half truth, half falsehood. You can see this in the Bible, for instance, in Mark 15:31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were mocking Jesus on the cross, saying, "He saved others; He cannot save Himself!". These religious officials were half right and half wrong. They explained that the Son of God was able to save others, but they didn't speak the whole truth. In Psalm 116:11 you read, "All men are liars". This statement is not completely true, it's an exaggeration of human nature. Like Jacob, do you not sometimes fall short in your confessions? Does your mind and heart really remember God's promises, blessings, and mighty power?

Let's look at Jacob's situation. You know from reading the Bible that Joseph did not die from being eaten by an animal at a young age, but instead became prime minister of Egypt. You also know that Simeon was not persecuted in prison, and that Benjamin was in no danger of harm from "the lord of the land". Actually, Jacob will find his long lost son. This was God's way. Real blessings and real peace awaited Jacob. All these things that Jacob thought were against him were truly for him. God sent Joseph first to Egypt so that all Jacob's family could be blessed. Joseph knew this and he told his brothers, "Now do not be grieved or angry with yourselves, because you sold me here, for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 (Gn. 45:5).

Why did Jacob make the mistake of looking at God's blessings as curses? He lost his encouragement. Sometimes when people get old, they lose encouragement. Also, people sometimes lose encouragement when they are faced with one situation after another. Look at Elijah. After he won the whole battle against the prophets of Baal, the woman, Jezebel, talked to him and he gave up, he said, "It is enough; now, O Lord, take my life, for I am not better than my father" (1 Ki. 19:4). How about you my friend? How is your confession? Are you depressed over all these things? Is the pastor's sermon too long and hard? Do you think he only talks about the Bible and that this doesn't make any sense for your situation? Do you know what? If a servant of God preaches right, if his sermon is Christ-centered, then many people want to go to another church. Why?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the Word of God, but prefer the word of men. The Word of God hurts their heart because it's sharper than any sword. They cannot enjoy themselves. They come to church like business people, thinking this is entertainment Sunday, visiting only on Sunday for a short time because they have to practice their golf and think about how they are going to close deals. That's why their faith is falling. That's why they are discouraged and spiritually lost.

People who have negative perspectives can't see blessings. Any situation or blessing that comes their way, they always look at the negative side. There's no winning way with them. The church may be a blessing, the sermon may be right, and everyone may be happy and appreciative, but this person finds fault. They act like they are really concerned about you and the church, but you have to be very careful. You can't trust what they say

because they have something wrong in their mind. They're like the person who sees a big train for the very first time and says, "Nothing that big can ever move forward and start". After the big train makes a big noise and starts moving, this same person says, "That train can never stop". Continually negative people are dangerous. Paul took encouragement in the Lord. He was a spiritual man who relied on God for his direction, "and when Paul saw them, he thanked God and took courage" (Acts 28:15). Even David, when threatened with death, found strength in the Lord, "Moreover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because the people spoke of stoning him, for all the people were embittered, each one because of his sons and his daughters. But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1 Sam. 30:6). Joseph was thrown in an empty well, sold into slavery, and put in jail but he relied on God and never gave up. He lived the best way.

People lose spiritual insight when they forget God and His promises. Why did Jacob complain? Because he lost sight of God's promise. When you don't think about God, you complain. During Jacob's flight from home, God told him, "I am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the land on which you lie, I will give it to you and to your descendants. Your descendants shall also be like the dust of the earth, and you shall spread out to the west and to the east and to the north and to the south; and in you and in your descendants shall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Behold,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Gn. 28:13-15). What a wonderful promise! Did Jacob forget this? Yes, that's why he complained that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If you don't believe God and His promises, you are going to be discouraged. Is God dead? Did He lose His power? Does He not take care of you anymore? Come on people,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tremble or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Jos. 1:9). People who really don't believe in the Lord can honestly say,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Why? Because they receive God's judgment. Even if they don't know God and everything appears beautiful in their life, they should still say, "all these things against me", because it is absolutely true.

We all know that the last days of Jacob's life were the most beautiful. What then should Christians say to "all these things"? They should proclaim,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 (Rom. 8:31)? Think about it. Who will separate you from the love of Christ? Wi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In his faith, Paul tells us, "For your sake we are being put to death all day long; we we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But in all these things we overwhelmingly conquer through Him who loved u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8:36-39). Amen! Aren't those promises you can rely on? The way you view "all these things", whether as blessings or curses, makes a big difference. If you are a believer of Jesus Christ you shouldn't say,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but if you don't believe then you should say it. Faith is important,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om. 1:17). Jesus told Peter,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Mt. 16:18). Amen. This is Jesus' promise. Do you believe it? Or are all things really against you? Impossible if you are a believer! What kind of situation do you stand on? How about your confession? Is it half true, half false or is everything true? Only a believer can testify that everything is beautiful because God is on their side. Believers know that Jesus died for them, and is right now preparing the perfect eternal home for their eternal life in His presence.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창 42:29~36)



김성남 목사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와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불행 뒤에 감추어진 축복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첫 번째 이집트 방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 땅의 주(主)”가 자식들에게 임하여 말했으니, 자식들을 “그 땅의 정탐자”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창 30:23). 그래서 시므온을 이집트 수에 들어 보내 남가주하여 했었고, 또한 가장 어린 형제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각기 양식 자루를 내어서 싣는 동안, 그들의 돈이 모두 그스라헨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돈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습다(창식 32:1) 지퍼질지 않았다는 것은 속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충분하였으므로,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창 30:23). 무언가 어긋나서 절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실각하게 될 때, 야곱과 이베 무는 일이었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조상 야브라함으로부터 선택되었던 야곱은 다 자란 열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땅의 주”가 요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했지만,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은 축복을 대신하는 불행이라고 여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들이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축복을 직면하면서 그것은 곧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함

우리의 삶에는 결함은 전리요 나머지 결함은 거짓으로 덮여진 채 다거오는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5:33에는 대제사장과 사기꾼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저가 많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 할 수 있도다”. 이 종교적인 관료들은 받은 오도 가장 나쁜 자들을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야곱의 아들들 생령이었던(창 28:10), 전적으로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창 28:11), 시편 118:1을 통해, “내가 절경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하도다”라는 말을 잃게 됩니다. 이 언급은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광망된 표현입니다. 야곱처럼, 어떤 때는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리고 능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야곱의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요새이 어린 시절에 동물에게 잡아먹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감옥에서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베냐민은 “그 땅의 주(主)”으로부터 어떤 해나 위험을 받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의 열아홉 아들들 다시 함께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실제적인 삶과 평안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고르셨고 하나님과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두를 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의 행태들에게 어떻게 바꿨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달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창 45:5).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다면 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라고 바라보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믿음의 용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은 온전 용기를 잃었습니다. 또한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상황 뒤에 맞게 되는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용기를 잃습니다. “렐라야”를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 한 후에, 자신을 용감하다고 믿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여호와께 바나고 낙하되” 지금 내 생명을 위협하소서 나는 내 고향으로 나직 되자”라고 절망한다(대상 15:4). 여러분은 이렇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를 깨워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너무나 무나 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단지 창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여러분이 겪는 상황을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야심하게 놀라운 사실은 만일 하나님의 종이 바를 말을 선포하야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깨운다면, 그들은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시퍼렇게 날이 선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탄하는 사탄지침의 교묘에 옵니다. 교묘에 있는 것을 우물쭈문해서 생각하고, 주일에 잠시 방문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로를 얻으려 하고 일부를 끌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낙담하고 영적으로 믿음을 상실하는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길과 신뢰의 길

부정적인 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찾아오

는 어떤 상황에서 축복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인 면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설교가 윤택하게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된다고 생각지도, 이러한 사람은 잘못이나 실수만을 발견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교회에 대하여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기차를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 열차 큰 기차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출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커다란 기차가 큰 용품을 배후에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는 “그 기차는 절대로 만능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마음을 나쁘고 안에서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맡겼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솔이 저회를 보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대단한 마음을 얻으리라”(창 28:15). 다윗 역시 용기를 잃을 때도, 주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였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근군하였으나 그 하나님은 여호와의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삼상 30:6). 요셉은 먼 훗날에야 인정했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최선의 길을 걸었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왜 야곱이 불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불행하게 됩니다. 야곱의 영적 진행에는 용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국 예루살렘에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예호시니 너의 조부 야브라함의 하나님인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은 말을 계속하니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하라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 28:13-15).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야곱이 이 약속을 잊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말하게 했던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역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족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상 동지적 양심기로 착각이라도 하십니까? 저,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나 여호와와 함께 하고 함께 하신다” 하신다(사 41:10).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절망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실권을 받지 때문이니(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신자의 고백). 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아름답게 나타내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기 때문이니(다만 믿지 않는 자의 결론은 모두 헛되고 심판에 이르게 될) 때문입니다.

언약을 신뢰하라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마지막은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로 8:31).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놓을 것입니까? 환이나 큰고나 끝이나 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간섭하십니까? 믿음으로 바울은 무위에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에 의하면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여서”라고 믿음이야 우리와 낙하히 이쁘다. 내가 확신하오니 하나님은 야곱이나 생애이나 원시자나 권제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히나 높음이나 능히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께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아담이 여러분은 이러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 즉 축복으로 보느냐 저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절대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함입니다. “복음에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기록 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어떤 이가 예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는 자라라 그 약속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은 진실이고 절망은 거짓입니다(여기서 모든 것이 진실입니까?) 오직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야곱보다도 증행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지극히 자신의 행동을 위해서 온전하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개인의주의가 강한 체코인에게

노방전도를 나간 첫 날, 사역에 대한 막연함으로 걱정하다가 처음 만난 한 노부인은 따뜻하고 친절하게 복음을 받아 주었다. 그 노부인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 한 이후 용기와 위안을 얻은 나는 선교 사역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체코에서 만났던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또 다른 체코인들의 구원에 대해 기도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박찬섭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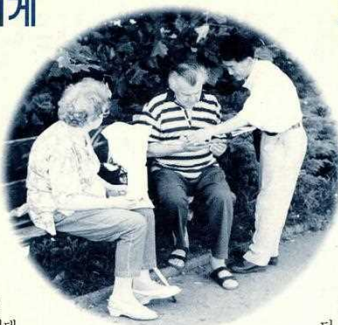
우리는 비싼 통역비 때문에 처음부터 통역자 구하기를 포기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전 대원이 뿔뿔히 흩어져 일대일의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역자는 없었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다.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냉정한 거부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러던 사람들과 순수했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원길 집사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던 체코 어린이들의 표정이 복음을 들었을 때 새롭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복음을 거절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체코 어린이들의 영혼이 주님의 복음에 갈급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강영집 집사

가기 전엔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척 걱정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사역에 대한 특별한 시간을 내게 허락하셔서 즐겁고도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최금실 집사

동유럽의 꽃, 문화와 예술의 나라 체코. 예수님을 알고 살아온 지만 50년, 기독교의 흔적이 남아있는 체코... 그러나 소수의 체코인들만으로 구성된 개신교 교회를 발견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영은 선생



효과적인 일대일 전도

유치부, 체코 단기 선교단

유럽의 개인주의 때문에 각박함이 많이 느껴져 처음엔 막막하기도 했으나, 성령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문화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있으나 신앙적으로는 너무도 공허한 그들... 체코는 복음이 거부된 땅이 아니라 복음이 꼭 필요한 곳이었다. 한정우 선생

단기선교를 떠나기 전 각오와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들었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 번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심을 깨달았다.

함종기 선생

체코에서 만난 사람들에서 느낀 것은 영혼의 외로움이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공간이 형성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찾고 계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느꼈다. 이선화 선생

체코는 복음이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듯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나 보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며 돌아왔다. 지금은 체코인들을 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성희 선생

선교사 이야기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 칼 벡커

아프리카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항상 의료 선교사들의 흥미를 끌고 있고, 또 그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크게 진전된 곳이기도 하다. 그 중 칼 벡커는 특별한 헌신된 의료 선교사로 꼽힌다. 홀어머니와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벡커는 의학 공부를 무척이나 하고 싶어 했다. 벡커는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약했으나, 막상 공부를 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를 부르셨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였던 찰스 험버트가 그에게 콩고에서 같이 사역할 것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그는 결국 매달 10,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포기하고 매달 60달러를 받기 위해 콩고로 떠났다. 피고미족과 다른 숲 속의 부족들을 위한 그의 사역은 굉장한 큰 성과가 있었다. 의료 사역과 더불어 주말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벡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술사들이 좌우하던 지역이 점차 복음화되었다. 그는 특별히 나병 퇴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나병 환자에 대해 깊은 사랑으로 치료를 베푸는 소문이 나자, 고립되어 숨어 살다시피 하던 수천 명의 환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그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사역 가운데서도 그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영적인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듯이 의료선교는 복음전파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적으로 선교사역을 확신한 그는 의료 사역을 복음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일하였다.

(루스 티커의 '선교사 열전'에서)

2002 단기선교 3차(10-12월) 모집

2002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까지 67개팀 700명이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3차팀(10-12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팀 구성/각교구 및 부서
2. 팀 구성 인원/10-12명
3. 기간/02. 10.1. - 12. 31.
4. 자격/ 1) 우리 교회 세례교인으로,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
2) CMTC 수료자 또는 앞으로 수료 예정자
5. 선교할 나라/ 외방 국가(다만: 선교위원회와 협의할 것)
6. 팀 훈련/ 팀장 주제 아래 팀 훈련을 하되 언어훈련, 전도훈련이 포함되어야 함.
7. 기타/ 팀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팀장, 총무는 본부에서 임명합니다.
8. 신청할 곳/ 선교단 4층 선교위원회실

2002 3차 CMTC 모집

- 1, 2차(1-9월)까지의 단기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3차(10-12월) 팀을 모집 중이며
그 동안 CMTC를 마친 사람이 50명 명입니다.
교회는 1년 내내 계속적인 단기선교를 계획하며
제3차 CMTC(경규)를 모집합니다.

개강일 / 주일만 9월 29일(주) 18:30-21:00

토요일만 10월 5일(토) 17:00-20:30

장 소 / 베다니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필 순 (철사, 신혼가정부 교사)

어느 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0년의 신앙생활,
봉사와 전도에 힘쓰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진정 네 저 깊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나 자신을, 내 가족을, 세상의 것과 그 외의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진정 죄인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사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

박혜경 (신혼가정부)

저희 가정은 올 10월이던 결혼 2주년을 맞은 신혼 가정입니다. 올 3월에 예쁜 딸 하은이가 태어났죠. 참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니다. 말씀이 없었던던 이러한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하며 남편에게 제일 일 순위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니다. 남편은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요. 그러나 막상 결혼하면 안 드리려고 했습니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동안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니다. 그냥 감정으로 아이기를 했다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나누는 대화는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었습니니다.

하은이가 태어날 때도 말씀이 없었으면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니다. 아기가 예정일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았던 것이죠. 의사들은 유도분만이니 촉진제니 겁을 주고 아무튼 하루 하루가 무서웠습니니다. 절리오는 안부전화도 받기 싫어질 정도로 겁이 났습니니다. 정말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니다. 임신 10달보다 예정일이 지난 그 10일 동안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습니니다.

그 당시에 묵상한 말씀을 쓴 일기입니니다.

2002년 3월 24일

바람아, 얼마나 예정일하고도 3일이 되었는데 올 바람아는 나을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얼마나 광장히 불안하고 우울하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잘못한 것 있나 생각해 해 보고 그랬는데... 많이 울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이 영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했네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 올 바람아가 태어날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 믿는다. 바람아도 그렇지?

분만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통의 시작에서부터 아기가 태어나 첫 울음소리를 낼 때까지 분만의 모든 세부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을 믿습니니다. 주님의 정하신 아기의 출생의 때가 가장 최선의 때임을 믿습니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꾸려갈 것입니니다.

하나님의 율타리 안에서

홍미정 (신혼가정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향해 갑니니다.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척이나 드문 만큼 서로 다르게 살면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뤄 산다는 것 역시 무척이나 힘이 듭니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사람의 결합이 서로의 의지만으로는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새로운 가정의 출발은 나도 아닌, 우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관으로만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르리라 하시니라”(창 2:18).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처음에 독처하도록 만들므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진정한 동반자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짝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우리도 죄인이므로 연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연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결혼을 통해 둘이 힘을 합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니다.

아직은 세상의 욕심에 미련을 가지는 부족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율타리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교제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성령의 불을 가슴에 안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저희 부부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봅니다.

둘·라·우·신·주·의·이·름

11. 어린 양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한 개인 이삭을 대신하여 죽도록 수양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언젠가 어린 양이 그 민족을 위해 죽을 것을 예언하였다(사 53:8).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장에 속한다. 그것은 메시아의 초자연 탄생과 질서와 슬픔의 삶과 백성의 죄를 위한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묘사한다.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명하여 그를 구하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기꺼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길을 택하셨다(사 53:7).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나니까?”하고 물었던 질문은 수 세기 후에 세례요한에 의해 대답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말하였다. 이 중요한 진술은 우리에게 주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값주신 사신 구원에 관해 무언가를 말해준다.

요한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한 사람을 가리켰다. 메시아는 선지자들의 말에서 고난 받는 종이자 영광스러운 왕으로 예언되었으나 유대교 학자들은 이 모순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졌다. 어떻게 메시아는 그토록 수치스럽게 고난을 당하며 그럼에도 또 그토록 영광스럽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피는 죄를 없앤다. 그것이 수치스런 고난이면서도 영광스런 다스림의 비밀이다. 죄를 없앨 수 있는 피를 가진 어린 양은 없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히 10:4).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히 제사되신 하나님의 최후의 어린 양이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히 10:12). 동물의 피나 도둑적 행위가 인간의 죄를 제할 수는 없으며(히 10:1-4), 목재의 율법과 율법 아래 제사된 각 동물은 단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를 뿐이다.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들은 예수 선행, 예수 치료사, 예수 모범자를 원하지만 죄없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혈을 흘린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는 일부비거나 기초가 아니라 전부이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거리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전 1:18-31).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외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고전 15:3)라고 말한다. 만약 그것 외의 것을 첨가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거기에 첨가된 것은 없다.

주요종교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

9교구 신내 1, 2구역



어느 권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이, 알 수 없는 티켓이 없어서 아내가 들어가는 어떤 좋은 곳에 못 들어가니 꿈을 꾸 뒤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성경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말이다. 그래서 그 많은 종교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죽음은 '죄의 값'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 구역원들은 자신들의 죄상에 대해서 고백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나누었다. 바로 이 고백만이 우리를 시온의 문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한 구역원이 농촌 교회로 미용 봉사를 갔을 때의 일이다. 그 곳에서 천주교인들을 만나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불교인들과 함께 일을 하며 선행이 구원의 척도인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다. 열댓 보기에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논쟁하지 아니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관용이 많아 보이는가? 그리고 선을 함께 행하며 하느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가? 그러나 그들은 사망의 문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선행이나 연합, 관용도 사람들을 시온의 문으로 인도할 수 없다. 시온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구역원들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는 다른 종교들이 서로 연합해 가는 추세며 결국 오직 복음을 들고 있는 기독교만 남아서 말씀대로 모든 민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런 기독교가 설 곳이 점점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열심히 주님만 찾으며 복음만 전하자고 서로 격려했다.

(권오섭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석균' 성도를 소개합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살며, 형이 한 명 있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오십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그맣게 자리했었는데, 차츰 나이를 먹으며 다른 종교에 심취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건 강도 좋아지고 웬지 어두웠던 마음도 차츰 밝아지며 활기를 되찾으셨지요. 내심 호렷했지만 그로부터 어머니와 거의 긴 세월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종교적 갈등은 언제나 불화의 씨앗이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꼭 다시 돌아오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사실이었는지, 말마다 조그맣게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로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릴때 염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며,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충현 교회의 고공스런 건물이 평안하고 경건한 느낌을 주었고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2주 되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나오면 새가족부의 작은 선생님이 저한테 웃으며 보여주시는 미소가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숙정 통신원)

다음주일 찬송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은 1896년 윌리엄 오르컷트 커싱 목사에 의해 작시되었다. 그는 성대에 이상이 생겨 말을 크게 할 수 없게 되어 강단을 떠났으나 방황하지 않고,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한 후 주님의 응답으로 300면에 이르는 영감있는 찬송, 찬양시들을 작시하였다. 같은 해에 아이러 데이비드 생키가 작곡하였다.

- 1절: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비지에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후렴: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감을 자 누보.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새삼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로 누리리라.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리로다.

이 찬송은 4분음표가 한 마디에 6개가 있는 4분의 6박자 곡이다. 6박자의 곡은(8분의 6박자, 4분의 6박자) 크게 두 박자로(셋씩 묶어서) 볼 수 있는데, 마치 잔잔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리듬을 맞추어 부르면 음악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가사도 잘 전달된다.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밑으로 끌어모으는 것 같은 따스함과 편안한 안식이 느껴지는 찬송이다.

(전영환목사)

내 마음의 묵상

진정한 들음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씨 뿌리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밭가기를 거닐고 게실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모여든 사람들이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것은 매우 도전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메시지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신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가리킨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이 얽매고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좋은 토양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이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눅 8:11-15).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다. 즉, 말씀을 듣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한편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목적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곧 마음과 삶의 온전한 변화에 있음을 강조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들음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말씀을 듣지만 강력한 마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욕도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맺고 있는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사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눅 8:8).

(김성회기자)

양오실

13교구 이순봉 집사(984세) 교통사고로 골반뼈가 골절되어 있습니다. 고령이라 회복이 무척 더딘 상태입니다. 골절 부위가 빨리 아물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동걸 집사(남57세)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오후 쪽 팔츠신경이 썩고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이 지치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5교구 김선에 성도(952세) 비인두종양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힘든 치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견디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의 큰 기쁨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외삼촌이 병원에 계실 때 오빠와 나는 이 찬양을 불러 드렸어요.
삼촌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꼭 나를 격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삼촌을 데려 가셨어요.
하늘 나라에서 일꾼이 필요 하시다고요.
악을 드실 때도 전파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던 삼촌!
숨쉬기도 힘들 텐데 성경말씀 읽으며 기도하시던 삼촌!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편지를 쓰셨어요.
우리는 그 삼촌이 어디 계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삼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할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지구 끝에 있는 친구들과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어요.
삼촌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거라고 하셨어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
우리삼촌은 천국에서 살고 있지요.
삼촌 보고 싶어요!!



신 예은 (유년부 5학년)

예수님을 알면

심 규 호 (소년부 전리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알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우리 중학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무섭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윗의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선지기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구해주시나.

[믿음의 학교에서]

나실인 삼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작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음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될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삿 13:5).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습시다(삿 13:1). 이러한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과 그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알려주신다(13:14).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나실인입니다(삿 13:5). 그는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죽을 때까지 영원한 나실인으로 지내야 했습니다(삿 13:15).

마노아의 내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不妊) 여성입니다(2절). 그 부부는 아이 갖는 일을 포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은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삼상 1:5-6).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긴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3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신 다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주실 아들, 그냥 기분 좋게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너무 쉽게 자식을 주면, 자녀들을 위한 선지자 사무엘로, 나실인 삼손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실 세례요한으로 키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자식을 바쳐서 키우기가 힘들었겠지요. 여기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중에서 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닐까요(빌 4:4,6,7)?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삼손이 출생합니다(24절).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갇힐 때보다 약할 때가, 완전할 때보다 불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 음성에 감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마노아의 내내는 축복받은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고난을 이해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4,6,7).

(권형임 기자)

질문의 생

누가복음(Luke)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③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누가는 영적인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였는데, 먼저 그는 ‘성전’에 대하여 많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맺는 장소가 성전이며, 일생에 한 번의 차례대로 드리기 위해 기다리는 ‘사가라’의 이야기(1:8-11)와, 건강한 사람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2:25-38)가 성전을 배경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삼대 이전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도 성전이며(2:41-50, 특히 2:46),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19:45)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기록함으로써(24:53), 성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찬양과 시(詩)’를 많이 기록하였는데, 엘리사벳의 노래(1:42-45), 마리아의 송가(1:46-55), 축복송(1:68-79), 영광송(2:14), 시몬의 찬양(2:29-32) 등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 2장에서 강조하였는데, 성령에 대하여 전체 17회 사용한 중에서 7번을 1, 2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사탄은 장면의 시작과 끝에서도 성령을 언급하였으므로(4:1; 4:14), 이사야 61장 1, 2절의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눅 4:18). 그리고 누가복음 10:10, 21; 11:13; 12:12 등에서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24장).

세 번째로,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였는데(1:10, 롭 5:8과 비교, 4:16; 6:12), 특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7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세례 받은 장면에서 예수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변화상 상에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하였으며, 죽은 자의 기도를 기록했습니다(눅 16:23에 나타난 부자의 기도로서 그 기도는 거절되었다). 또한 사형수의 기도도 기록되었고(눅 23:39-43에 나타난 사형수의 기도로서 시몬 31:5에서 인용하였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눅 24:30, 31, 즉사하십시오). 그리고 곤경에 처한 비유를 말씀하셨고(눅 11:5-8, 참들라는 천군에게 강령하여 받음),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눅 18:1-8,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 그가 기도에 대하여 가졌던 관심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 (출판국 지도)

교 회 소 식

모 집

1. 장로 월요배도회
일시: 23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니홀
2. 안수집사회 월요배도회
일시: 24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니홀
3. 전도위원회 월요배도회
일시: 25일(수)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니홀
4. 교정전도회 월요배도회
일시: 26일(목)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니홀
5. 군인교회 월요배도회
일시: 27일(금)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니홀
6. 권사 4회 월요배도회
일시: 28일(토)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니홀

남녀노소

1. 바울 10지회 월요배도회
일시: 23일(월) 18:30
장소: 풍천중앙 (대전광역시, ☎093-4415)
2. 베드로 7지회 월요배도회
일시: 24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목관 407호
3. 베드로 15지회 월요배도회
일시: 25일(수)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목관 407호
4. 요한 9지회 월요배도회
일시: 26일(목)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목관 407호
5. 루디아 9지회 월요배도회
일시: 27일(금)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목관 407호

결 혼

1. 이우철 군(충주군 은혜장사 아들, 11교 주교) 최희정 양(충주군 서의 양) / 20일 (토) 12:00, 남일당호명 5층 예식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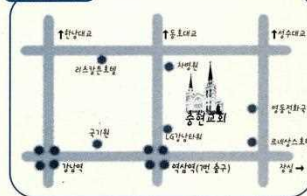
10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안수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찬양	안수	I	II
10	6	조인재	정운석	황의만	차신득	안종욱	장진태	김승준	이혜자	이경원
	13	김단용	김의철	김구형	이갑재	김하늘	김용석	김순배	김정현	이경원
	20	장모용	엄필선	이 훈	이정원	전종원	장상규	박도윤	박도윤	박도윤
	27	권명호	남인수	최윤덕	이대식	김지석	김단용	권기환	권기환	정주환

이변주 새벽기도회 담당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주일)
설교자	고광환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여성기	송길환
기도자	김영길	김형곤	최희일	장승규	박호용	윤인숙	한영준

교회 오시는 길



핸드벨 연주대 신임대원 모집

대상: 초등학교 6학년~대학원 기간: 1월 - 29일 주일 12:30~14:30
문의: 지휘자 송재철 (017-417-6018), 교단 210 장소: 핸드벨실 (옥탑방 3층)

요한 연합 제육대회

일시: 10월 3일(목) 10:00 장소: 수도권기독교

전양위원회 간사 모집

자격: 충현교회 세례교인으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자

청지기문인 안수집사 부부 찬양연습

일시: 매주일(오늘~10월 13일) 15:30 장소: 교육관 301호

국내 외국인 선교부 통역자 모집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통역으로 봉사할 통역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어
문의: 김창현 목사(☎352-8200 K356)

*주일은 이연출로 직접 찾아 오세요.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후 7:00	본당
	II 오후 9:00	본당
	III 오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제)	
	IV 오후 1:00(한국어 동시통역제)	본당
찬양예배	오후 3:00	본당
	(젊은이들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주요예배	10월 11일 오후 7:30	본당
금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버스: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집회	오후 11:00	버스: 금요일마다 본당 앞 출발

기다란 차량 운행: 월, 목, 토, 일 10:00 / 월, 목, 토, 일 7:00 (충주역에서 출발)

심 · 기 · 는 · 분 ·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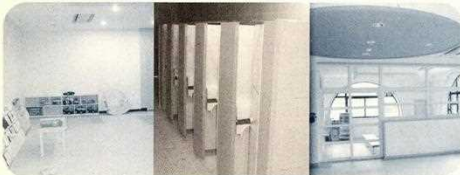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최기철 신교목회, 노광현 신교목회, 오진규 신교목회, 이병학 신교목회, 이종대 신교목회, 정현민 신교목회, 김동하 신교목회, 서광진 신교목회, 여성기 신교목회, 송길환 신교목회, 윤인숙 신교목회, 한영준 신교목회, 김승준 신교목회, 이혜자 신교목회, 이경원 신교목회, 김순배 신교목회, 박도윤 신교목회, 권기환 신교목회, 정주환 신교목회

■ 부목사

- 이종대 신교목회, 정현민 신교목회, 김동하 신교목회, 서광진 신교목회, 여성기 신교목회, 송길환 신교목회, 윤인숙 신교목회, 한영준 신교목회, 김승준 신교목회, 이혜자 신교목회, 이경원 신교목회, 김순배 신교목회, 박도윤 신교목회, 권기환 신교목회, 정주환 신교목회



새롭게 단장된 유아원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현 유아원'이 새롭게 단장되어서 지난주에 개원하였다. 주변의 타 유아원에 비해 시설 환경이 앞선 시설을 갖추게 되었는데, 4개월의 공사 기간에 걸쳐서 정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실 3개, 유아원 사무실, 조리실과 식당, 그리고 유아전용 화장실과 유아전용목욕실을 갖추고 있다. 새롭게 단장된 '충현유아원'이 이웃에게 복음화장의 기회와 천국입국 양성의 기회로 사용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10	박덕은	1	청년2부		616	최수은	16	소망부	윤상철(16)
611	박수연	1	청년2부	이국숙(1)	617	정규범	19	청년1부	
612	김진숙	5	청년2부		618	이종현	19	청년1부	
613	김인덕	6	청년1부		619	박한나	19	대학부	
614	남정숙	9	청년1부		620	정정인	19	대학부	
615	방성진	18	청년2부	이창호(8)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